

# 국내증시, 상승 모멘텀 부족... 증권가 박스권 장세 지속 전망

국내 기업 실적회복 등 영향  
성과 부진 계절성 띄어 부담  
체질개선 업종 방어력 높을 것

국내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더딘 실적 회복과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여전히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종목장 위주의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9월은 계절성 요인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분석한 2000년 이후 코스피 월별 주가 등락률을 보면 열두 달 중 9월이 -0.8%로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월은 2.5%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계절성을 띄는 이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인간 감정 변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연후 등 여러 요인이 지목된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하락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성과가 부진한 계절성을 띠는 자체만으로도 일부 투자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이



코스피가 전 거래일(2556.27)보다 7.44포인트(0.29%) 오른 2563.71에 장을 마감한 1일 오후 서울 증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28.40)보다 8.66포인트(0.93%) 내린 919.74에 거래를 종료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21.8원)보다 3.0원 내린 1318.8원에 마감했다.

달 코스피 지수 예상 변동폭(밴드)은 2400~2700사이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투자증권 2400~2650 △대신증권 2400~2700 △삼성증권 2450~2650 △교보증권 2450~2700 △NH투자증권 2458~2595 등이다.

증권사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 중국 부동산 위기 및 내수 경기 부진 등이 계속해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하반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245개사의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합산액은 44조321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감소했다.

강민석 교보증권 연구원은 “9월 주식시장은 투자심리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횡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평가가 글로벌 투자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높은 물가환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소비가 악화되는 것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박스권 흐름에서도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 위주로 오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식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전지, 이종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실적 전환 기대감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반도체가 주가 상승 여력이 클 것”이라며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항공·면세점 업종과 정제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 정유 업종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당주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연말 주가 수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고려해 연금급은 9월부터 배당주를 매수한다”며 “올해 경기 회복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 고배당보다 배당수익률과 순이익에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업종의 방어력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SK에코 ‘뉴지오호닉’ 풍력부지 확보

대륙 간 상용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SK에코플랜트가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인 대륙 간 상용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뉴지오호닉(Nujio’qonik)’ 프로젝트가 20조원 규모의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뉴지오호닉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캐나다 월드에너지GH<sub>2</sub>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각) 캐나다 주 정부로부터 풍력발전을 위한 국유지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뉴지오호닉 프로젝트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그린수소를 뽑아내고, 이를 다시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해 유럽 등 타 대륙으로 운송하는 초대형 상용 그린수소 사업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주의 뉴펀들랜드 섬에는 과거 왕실이 소유했던 ‘크라운 랜드(Crown Land)’가 있다. 현재는 국유지로 이중 일부에 대해 풍력발전 및 수소생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사업

자들에게 입찰을 거쳐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

풍력부지 입찰에는 총 24건의 프로젝트가 참여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사업수행 경험, 전력계통 연계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뉴지오호닉 프로젝트 등 4개 프로젝트만 최종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엔 부지 사용 승인을 받은 토지 면적은 총 1077.91km<sup>2</sup>다. 서울 전체 면적(605.24km<sup>2</sup>)의 약 1.8배에 이른다.

이번 국유지 사용 승인으로 뉴지오호닉 프로젝트는 향후 3단계 확장까지 필요한 풍력부지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가능한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4GW, 원자력발전소 3~4기 분량에 육박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월 월드에너지GH<sub>2</sub>와 투자 협약을 통해 뉴지오호닉 프로젝트 중 1단계 사업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를 비롯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기를 공급, 설치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

##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734가구 공급

운암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용 84·94·101㎡ 자연 친화형  
일부 세대 운암산·영산강 조망

우미건설이 이달 중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서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는 광주 북구 동림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94·101㎡, 총 7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 399가구 ▲94㎡ 50가구 ▲101㎡ 285가구다. 일부 세대에서는 운암산과 영산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는 상무지구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본촌일반산업단지,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1·2지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인근에는 한울초, 서강중, 서강고 등도 위치해 아이들의 우수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투시도.

/우미건설

한 면학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단지는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4Bay 설계와 오픈형 테라스(해당 세대) 등을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적용하고, 조경면적 약 43%로 공원형 단지를 구성해 쾌적함을 더했다.

영산강조망이 가능한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카페 Lynn 등 다양한 커뮤

니티 시설이 마련됐다.

우미건설은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에어클린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주거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4-8번지에 마련되며, 이달 중 오픈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

##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11곳 선정

수리 등 통해 주거환경 개선

올 상반기 도시재생 사업 신규 사업지로 충북 청주 등 총 11곳을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접수된 27개의 사업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충북 청주를 혁신지구로 선정하고, 인천 강화, 경기 의왕 등 10곳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 및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

구 사업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727억원, 지방비 498억원 등 총 6460억원을 투입해 공동이용시설 15개, 신규주택 261가구 공급과 노후주택 584가구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 사업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 등 추가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peace@

## 9월 첫째주, 전국 1527가구 분양 ‘스타트’

분양 캘린더

일반분양 1120가구 분양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1527가구(일반분양 112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개봉’, 광주 광산구 하산동 ‘광산센트럴파크’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1곳이 오픈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

원에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의 후분양아파트로 오는 2024년 3월 입주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상도14구역과 15구역 등 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사업 완료 시 5000가구가 넘는 신혼주거타운이 형성돼 정주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중심 반경 1km내에 상도초, 신상도초, 장승중, 국사봉중 등 학교가 밀집해있고 국사봉, 상도근린공원도 등도 가깝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광주 북구 동림동 일원에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 서울 양천·전남 나주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가 4일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

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신월5·1·2동, 신정4동·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며 나주시는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

해사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하나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 경기 구리·부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해 왔다. /이규성 기자 peace@